내 마음속 너를 위한 빈방

(레21:1~24)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2.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3.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4.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5.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6.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7.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 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8.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9.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마음속 너를 위한 빈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내 마음속 너를 위한 빈방’

“에게 해의 진주”로 일컬어졌던 “나나 무스꾸리(Nana Mouskouri)”라는 여가수가 있습니다. 이 분이 아름다운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대표적인 노래가 ‘사랑의 기쁨’입니다.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 가사는 사실은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기 보다는 사랑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식 때 축가로 많이 불리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율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한 순간이지만 사랑의 슬픔은 영원하죠 / 당신은 아름다운 실비아를 위해 저를 버렸고 / 그녀는 새로운 애인을 찾아 당신을 떠났고 / 사랑의 기쁨은 잠시 머물지만 사랑의 슬픔은

평생을 함께 해요 / 초원을 흐르는 저 시냇물을 향해 / 이 물이 끝없이 흐르는 한 당신을 사랑하리라고 실비아는 말 했었죠 / 물은 아직도 흐르는데 그녀는 변했어요 / 사랑의 기쁨은 한 순간이지만 사랑의 슬픔은 영원히"라고 하는 이 노래가 쇼펜하우어의 철학보다 인생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해줍니다.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이 인생의 내용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사랑하여 기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인데 현실은 사랑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사랑 때문에 슬픕니까?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합니다. 둘이서 사랑하다가 실비아라는 여자가 개입하는 바람에 남자친구가 실비아에게로 가버렸습니다. 실비아가 '저 강물이 흐르는 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홀딱 넘어갔어요. 그런데 강물은 흐르고 있는데 실비아는 변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남자친구가 떠나면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사랑의 슬픔만 남았는데, 나를 떠난 남자친구도 실비아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짝사랑의 기쁨은 한 순간이고 슬픔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짝사랑의 정의는 내 심장을 터질듯이 뛰게 만들어놓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를 위한 빈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심장을 터질듯이 뛰게 만들어 놓아서 내 마음 속에는 그를 위한 방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가 내 마음 속의 빈방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의 마음속에 나를 위한 빈방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짝사랑은 심장이 터질듯이 감격으로 시작해서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끝이 나면서 슬픔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절벽을 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나를 위한 빈방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의 슬픔이 샘처럼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짝사랑을 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고 죄가 없으면 짝사랑도 없고 사랑은 원래 기쁨으로서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은 한 순간이고 사랑의 슬픔은 영원하다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기쁨으로서 영원한 사랑의 원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 오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마 3: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하십니다. 사랑과 기쁨을 연결하신 원조가 하나님이시고 이 사랑과 기쁨의 연결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직전에 기도하실 때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화로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영화로움 속에서 느끼셨던 당신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며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서신 그 자리에 서다 보니 주님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제를 하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충만하고 영원하신 사랑의 기쁨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로 충만하셔서 기쁜 것처럼 우리도 기쁜데 그 기쁨은 본질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될 때에는 짝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쁨을 얻고, 주님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므로 사랑은 원래 슬픈 것이 아니고 영원히 기쁜 것이라는 얘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들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있고 아들 예수님 마음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빈방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의 빈방을 채우심으로 만족과 기쁨이 발생합니다. 만족해야 기뻐집니다. 이 기쁨은 아들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심으로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하신 영원한 기쁨에 대한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그를 위한 빈방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 나를 위한 빈방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충만한 상태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고, 배부름을 위한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할 때에는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고 얼굴에 웃음이 나오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인생을 산 것이 아니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충만한 상태가 사랑이고 기쁨이고 만족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하게 눈에 거슬리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선민들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거룩함을 얘기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6절에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것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제사물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시고 양분을 보충해야 사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동일시되는 것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먹는다.’는 것은 나를 굶주려하고 계신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로 배부르셔야만 한다면 나 의존적 존재가 되신다는 것인데 나에게 의존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스스로 충족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 인(人)은 서로 의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져야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하나

님이 도대체 우리를 음식으로 드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해 굶주려하신다는 느낌을 주는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말씀이 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비워져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한 흡입력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더 이상 나를 향해 빨아들이고 나를 채우려고 하는 흡입력이 끝나고 만족하게 되었을 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어있는 상태에서의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전부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웃을 사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애주의적인 세계적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나를 채우고 나의 보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박애주의자들의 문제는 그들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난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으로 박애주의 정신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면 나의 만족과 보람과 내 뜻 깊은 인생을 위해서 난민들이 항상 내 앞에 존재해야 하는 이상한 역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심이 없으시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족함이 없는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빈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짝사랑을 할 때의 문제는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도 그쪽에서는 '내 마음에는 실비아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위한 내 마음속의 빈 공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절망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부족한 분이 아니신데 일부러 나를 위해 당신의 마음속에 빈방을 만들어 두시고 내 이름을 붙여두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태 승철의 빈방을 만드시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홍길동의 이름도 붙여놓고 빈방을 만들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름이 붙어있는 빈방들의 임자가 바로 선민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빈방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보다 더 이상의 기쁨은 없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이 마음을 바꿔서 '이제부터 너를 사랑할 마음이 생긴 것 같아. 너를 위한 마음의 빈방이 생기고 너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졸도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빈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고, 다른 것에 마음을 집어넣고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빈방을 채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자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은총이고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름만 붙어있고 비어있는 빈방의 임자들을 찾아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빈방을 채워드리는 자들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위해 준비된 그 빈방을 채워드릴 수 있고, 거룩해짐으로서 채워지면 그 다음에 내 삶은 전적으로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끌려가는 삶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만인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속 빈방을 채워드리는 음식이고, 밥을 먹었으면 그 다음날 또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강물이 흐르듯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식이 됨과 동시에 만인제사장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선민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의 음식이 되고,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호텔 보이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룻밤에 10만원 하는 호텔이 있다면 10시 반 넘어가면서 5만원으로 값을 낮춰서라도 빈방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 마음속의 선민을 향한 빈방들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호텔 보이인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거룩을 가르쳐야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이 되고, 하나님 마음속에 빈방을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태초로 돌아가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혼돈'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있고,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살아갈 인생의 길이 다 정해져있는데 그 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길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혼돈입니다. 원래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다른 길이 겹치면서 서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공허'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 외의 혼돈한 길을 걷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력해도, 노력해도 채워지는 것이 없으니 그 다음에는 흑암이 덮인 깊음에 가라앉게 되어서 우울해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슬픔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과 반대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한 빈방을 만드시자마자 생긴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영역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인 깊음이라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나타나게 되어서 걱정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아닌 상태는 전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밀려들어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장 26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라고 하십니다.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섬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선민이라는 말입니다. 혼돈의 바다, 공허의 바다, 흑암이 덮인 깊음의 바다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혼돈이 억제된 곳, 공허가 억제된 곳, 흑암이 덮인 깊음이 억제된 공간에서 사는 자들이 선민이고 섬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가능합니다. 내 마음속의 빈방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만드신 빈방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짝사랑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 삶도 찢어지고 내 사후의 영원한 세상도 찢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고 내 빈방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곧 거룩이고, 하나님 마음속에 내 이름으로 걸려있는 빈방을 채울 수 있는 음식이 되는데 하나님 마음의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인이 내 마음의 음식 아닙니까? 자식이 내 마음의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마음의 음식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혼돈을 일으키는 음식이고 거룩을 깨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내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음식으로서 살아갑니다. 제사장으로서는 거룩한 삶을 보이면서 거룩하지 않은 영역에 있는 선민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마음속에 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빈방을 채워드리고, 나 스스로는 끊임없이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마음속의 빈방을 채워드리는 음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나가서 사실 때에 사장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사장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빈방이 있을까 없을까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가 볼 때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직장의 사람들은 성과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마음속에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선민일 경우에 하나님의 음식으로 채택되고 준비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선민들이 있어도 그 선민들이 발굴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속의 빈방을 채워드리는 호텔 보이인데, 그 빈방마다 임자가 있어서 그 임자를 찾아내려면 나 스스로가 먼저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 때에 생각이 무엇에 대한 생각인지를 봐서 이 땅에 대한 생각이면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서 초장에 죽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조차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땅의 것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땅의 것이 생각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려야 죽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빈방을 채워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이 되므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는 주님을 향하신 말씀이 내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도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랑의 기쁨은 원래 영원한 것이고, 사랑의 슬픔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애인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마음이 아프거나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마음이 아프다면 애인 나무랄 것도 없고 자식 나무랄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다면 돈을 나무랄 것도 없습니다. 다 거룩하지 않게 딴 짓거리하고 있고 스스로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백발백중 슬픔과 아픔과 마음의 찢어짐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애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형제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권력이든 돈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모든 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나고 찢어지는 아픔으로 끝나고 슬픔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사랑의 슬픔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보이는 세상에 사랑할만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생활화함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분의 음식이 되어서 그 분의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또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어서 육체가 죽은 뒤에도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의 세계 속에서 살게 해 주시고 그 영원한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은 영원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이 되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또한 나의 음식이 되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음이 슬픈 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엇인가를 사랑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움이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로 이 땅에서 사랑할만한 모든 것에 대해 죽는 것을 생활화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원히 기쁨으로서만 존재하는 그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